

## 시도지사·지역의원 한목소리 “과학벨트 광주·전남으로”

### 광주서 유치 설명회...정치논리 배제 촉구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28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설명회'를 열고 호남권 유치를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지도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행'을 당론으로 내건 가운데 핵심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이 지역상생발전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유치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이날 오전 광주시 북구 첨단지구 광주과학기술원 오토크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호남권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강은태 광주시장, 이개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영진 국회의원, 김진외의 서울대 교수를 비롯 박주선·조영택·장병완·강기정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선우중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강정채 국립심혈관센터 추진위원장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선정은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호남권에 유치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순리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에는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가는 광주과학기술원 있고 좋은 산업단지가 많아 광주전남 이상 좋은 곳이 없다"며 "광주를 모체로 하고 대구와 충청 등을 삼각벨트로 묶어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국토 균형발전의 절실한 대안이 될 때로 당론에 질식되면 안 된다"며 "충선과 대신이라는 짧은 안목으로 특정지역에 과학벨트를 유치하는 것은 옳지 않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치위원인 김진외의 서울대 교수는 유치제안서 설명에서 "호남권은 범수도권을 연결하는 서해안 벨트와 내륙벨트, 남해안벨트를 통합하는 통합네트워크의 허브로 '과학 한류'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박주선 의원은 "과학벨트 관련법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날치기한 법안으로 원천 무효라는 당론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며 "충청권에 유치한다는 개정안도 유효한 당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적의 조건을 가진 호남권 유치를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인 만큼 광주·전남지역 의원 20명은 호남권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호남권 유치설명회에서 일부 참석자는 행사장 곳곳에 호남권 유치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광주·전남은 이번 설명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비전을 '기초과학의 획기적 진흥을 통한 과학 한류 창출 및 세계 일류국가 창조'로 삼고,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거점 구축 및 연구역량 확보, 과학·비즈니스·문화예술의 융합을 통한 미래 신산업 창출, 국가과학 통합네트워크 및 과학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다음달 8일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전국 과학관련 협회,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포럼을 개최, 유치 열기를 확산시켜나가는 한편 2011년 유치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 각화농산물시장의 설대목

민족의 명절 설(2월3일)을 앞세 28일 광주시 북구 각화농산물도매시장에는 제수용품 구매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이 곳에서는 선물용 사과(15개) 1상자가 2만5000원, 배(9~10개) 1상자는 3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는 대형마트 판매 가격보다 평균 20~60% 가량 저렴하다.

## 금호고속 파업·민노총 광주집회 철회

### 姜시장 중재로 노사 합의 설연휴 교통대란 없을 듯

금호고속 노조의 설 연휴 파업과 전국운수노조의 전국집회가 강은태 광주시장의 중재로 전격 철회됐다. 강은태 광주시장은 28일 오전 광주 시청 접견실에서 김현철 금호산업 전무이사, 백정남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장 등 노조대표 2명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설 연휴 파업과 29일로 예정된 전국집회 철회에 합의했다.

금호고속 노사 양측과 광주시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 "금호고속과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는 전국운수노조 집회와 구정기간 파업을 비롯한 민주노총 운수노조 금호고속지회의 파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설 연휴 이후 이른 시일 내에 노사 간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성실한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강 시장의 중재로 이뤄졌다.

강 시장은 노조에 "구제역 확산과 설 명절 교통혼란을 막기 위해 대규



강은태 광주시장(가운데)이 28일 오전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민주노총과 금호고속의 노사 갈등을 중재한 뒤 백정남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왼쪽)과 김현철 금호산업 전무이사의 손을 맞잡고 있다. <광주시 제공>

모 집회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회사에도 오는 7월1일부터 복수노조 인정법이 발효되지만, 그에 앞서 노사간 대화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강은태 시장의 뜻을 존중하며 신뢰회복이 중요하고 대화가 이뤄진다면 파업 및 집회 중단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광주시와 노조측의 대화요구에 적극 나서고 현재 법적 당사자인 노사간 소송문제도 대화

를 통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하면서 지역 내 이슈였던 금호고속 노조 파업 및 대규모 집회가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설 명절기간 고속버스 대란과 대규모 집회로 인한 구제역 확산 우려도 해소됐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 26일 대규모 전국집회 자체를 요청하고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경영자총협회도 이날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석해균 선장 오늘 한국 도착

석해균(58) 선장의 한국 이송이 전격 결정됐다.

한국 정부신속대응팀은 석 선장을 태운 환자 이송 전용기(에어 앰블런스)가 오는 29일 오전 8시(이하 한국 시각) 살랄라공항을 출발, 같은 날 오후 7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 선장을 실고 가게 되는 경비행기 형태의 환자 이송 전용기에는 한국에서 파견 온 이극종 아주대 외상센터장과 김지영 간호사, 그리고 항공공기를 통한 환자 이송 전문가인 현지 의사 1명 등 3명의 의료진이 동승할 예정이다. 석 선장을 공항에 도착한 직후 곧바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돼 추가 처치를 받게 된다. /연합뉴스

## 구제역 살처분 최소화 한다

### 예방접종 소·종돈·모돈 감염때만 매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구제역 살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몰대상 선정 기준을 조정했다. '구제역 책임론'과 관련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현재의 구제역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모든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는 다음 깨끗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날 "전국 예방백신 접종이 시행됨에 따라 27일 매몰 대상 가축을 될 수 있으면 줄이도록 범위를 새롭게 설정해 자치단체

들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예방접종한 소와 종돈·모돈은 접종 결과 기간에 관계없이 감염됐을 때만 매몰하도록 했다. 비육돈은 예방접종 후 면역력이 형성되는 14일이 지났으면 돈방의 폐지만 살처분하고 14일 미만이면 돈사 단위로 매몰한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구제역 백신을 맞은 지역은 발생 농가의 가축을 살처분하고 백신 접종이 안 된 곳은 발생농가 500m 내 가축을 매몰했다.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유 장관은 이날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최근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 불거지고 있는 '책임론'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구제역 사태에 대해 모든 책임은 장관이 질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공직자의 본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7일 반세기 만에 최악의 구제역이 한국에서 발생해 설과 맞물려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아시아 각국의 확산 및 출입국 검역 당국에 경계를 내렸다.

한편 광양에서 천연기념물 243-1 호인 독수리 머리가 잇따라 죽은 채 발견돼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강 시장은 노조에 "구제역 확산과 설 명절 교통혼란을 막기 위해 대규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謹賀新年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해 배풀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욱 더 행복한 순간을 제공해 드리는 히딩크호텔이 되었습니다.  
Special Events  
객실 전 객실 50% 할인  
웨딩홀 | 웨딩 패키지 할인(숙박권 증정)  
돌잔치 | 숙박권 증정 및 패키지 할인  
칠순연, 각종 세미나 (대·중·소 연회장 완비)

한국이 낳은 동아시아 최고의 음악가 정율성선생 (1914~1976)  
중국 3대 음악가중 1명으로 추앙  
중국인구 40%이상 (6억이상)  
중국의 위대한 음악가이며 민족주의자이며 항일운동가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인구 80%이상 (10억이상)  
정율성이 작곡한 노래 최소 1곡이상 알고 있습니다.  
히딩크관광호텔은 음악가 정율성선생 탄생지입니다.  
주/요/작/품 연안송, 팔로군군가, 팔로군행진곡(중국 인민해방국가 지정), 연수요, 동해어부 재벌가, 흥안령에 눈꽃날리레, 푸른조국 별노래, 우리는 행복해요, 5악기극(양부운), 오백동사사들 독창, 중창, 소합창, 동요, 뮤지컬, 오페라등 360여곡 작곡